

# 광주 주유소 기름값 18주만에 하락... 체감은 '글썸'

전남 휘발유·경유가격은 상승세 여전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두달 연장  
“낙폭 크지 않아 체감 효과는 미미해”  
“유류비 부담 커 1500원대 떨어져야”

고공행진하던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8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대외 변수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름값이 본격적인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 지역민들의 가계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전남지역의 경우 2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경유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광주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16.89원으로 전 주인 1718.93원과 비교해 2.04원 하락했다. 이는 기름값이 상승세로 전환하기 직전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았던 10월 둘째 주 1560.48원과 비교하면 156.41원 오른 가격으로, 광주지역 휘발유값은 10월 셋째 주 반등하기 시작한 17주 연속 상승하다가 18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

다. 자동차용경유 역시 18주 만에 가격이 하락했다. 2월 둘째 주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585.32원으로, 전 주인 1586.75원과 비교해 1.43원 하락했다. 이는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경유 가격이 반등하기 직전인 10월 둘째 주 1389.60원과 비교하면 192.72원 상승한 가격이다.

전남지역 휘발유·경유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 둘째 주 전남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30.61원으로, 전 주인 1730.50원과 비교해 0.11원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 반등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 1598.04원과 비교하면 132.57원 오른 가격으로, 18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직전 주와 비교했을 때 △1월 둘째 주 12.50원 △셋째 주 16.19원 △넷째 주 18.99원 △다섯째 주 9.46원 등으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달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1.34원 △둘째 주 0.11원 등으로 둔화됐다.

경유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월 둘째 주 자동차용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594.25원으로 전 주인 1592.86원과 비교해 1.39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 반등이 시작된 1432.45원과 비교하면 161.8원 상승한 가격으로, 16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경유 가격이 전주 대비 △1월 둘째 주 13.63원 △셋째 주 18.87원 △넷째 주 27.1원 △다섯째 주 14.58원 등으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달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2.74원 △둘째 주 1.39원 등으로 다소 둔화했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며 국내 기름값이 소폭 하락했지만 미국의 러시아 제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기름값이 본격적인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2월 둘째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이란 제재에 따른 단기 수급 차질 우려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상승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 국제유가 흐름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

부탄 23%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8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작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소비자들은 “기름값 낙폭이 크지 않아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 나주로 출퇴근한다는 박모(34)씨는 “회사에서 유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만 휘발유값이 1700원대까지 오르고 난 뒤로는 기름값 부담이 더욱 커졌다. 한 달 40만원 정도를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낙폭이 크지 않고, 저렴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여전히 휘발유 기준 1700원대에 주유를 해야 하니 체감 효과가 크지는 않다. 1500원대까지는 가격이 내려가야 기름값이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국내 유가의 등락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기름값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 전시센터에서 개막한 'IDEX 2025'의 기아 전시장 모습. 기아 제공

## 기아 광주 생산 '전술용차량', 국제 방산전시회 참가

오는 21일까지 UAE 아부다비 세계 65개국 1350개 업체 참가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된 전술용차량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다.

기아는 17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IDEX 2025(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 Conference,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IDEX는 전 세계 65개국 135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하는 아프리카·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기아는 소형전술차(KLTV, Kia Light Tactical Vehicle) 2인승 카고를 공개한다.

이 차량은 △수심 760mm 하천 도섭 △60% 경경사 및 40% 횡경사 주행 △영하 32도에서의 시동 능력 △전자파 차폐 기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차량이다.

우수한 기동성과 플랫폼 기반의 높은 활용성을 인정받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군용차량 교체 사업에서 신규 차량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는 선보이는 중형표준차 보닛형 베어샤시는 프레임과 엔진 등으로만 구성돼 특화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특히 운전석이 엔진 뒤로 배치돼 있어 차량 전방의 위협으로부터 운전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아는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타스만'을 함께 전시한다.

기아 관계자는 “중형트럭에서부터 픽업에 이르기까지 기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용한 다양한 특수차량들을 선보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군 맞춤형 특수차량 개발을 통해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새해 첫 달 광주·전남 수출 급감...무역수지도 '뚝'

광주본부세관, 1월 수출입동향 47억7천만달러...전년비 23.7% ↓

지난 1월 광주·전남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23.7% 감소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62.9% 감소한 7억3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7% 감소한 47억7400만 달러, 수입은 5.5% 감소한 40억3800만 달러로 나타났다.

### 전력거래소, REC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도입

신재생사업자 납부 편의 대폭 개선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사업자의 금융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간의 거래수수료 납부 방식은 사업자가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특히 고령이거나 금융업무 처리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납부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1월 19억822만 원 대비 62.9% 감소한 7억3600만 달러에 그쳤다.

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0% 감소한 11억6100만 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5억9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7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기계류(19.4%)가 증가했으나 수송장비(26.4%), 반도체(4.4%), 타이어(19.4%), 가전제품(49.9%)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9.5%), 고무(31.3%), 기계류(57.8%)가 증가했고

가전제품(16.1%), 화공품(26.3%)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36억1300만 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34억4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65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수출은 석유제품(31.0%), 화공품(33.6%), 철강제품(3.5%), 수송장비(16.2%), 기계류(69.2%)가 감소했다. 수입은 화공품(33.8%)이 증가했으나 원유(1.5%), 석유제품(5.8%), 철광(11.1%), 석탄(45.3%)은 감소했다. 최권범 기자

동이체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금융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납부를 놓쳐 REC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약 1만1000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존 가상계좌 납부 방식과 병행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은 이날부터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을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되며, 첫 자동 출금은 오는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 전남신보,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집' 발간

육성자금·교육 등 안내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이 2025년을 맞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 내용을 담은 '한눈에 보는 2025년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정책집에는 전남신보를 비롯한 전남도 및 22개 시·군과 도내 출자·출연기관

이 참여해 총 113개의 다양한 전남도 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수록됐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전남도 육성자금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역량강화 교육 △공공·상생배달업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각 시·군 및 기관별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강근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집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집은 도내 22개 시·군청, 출자·출연기관 및 주요 소상공인 직능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누구나 편리하게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